

고 윤말레(Mrs.이만택) 를 마지막 보내며...

그리운 친구 윤말레...

낮익은 그이를
마지막 불러보는
이름이 될줄이야!

왜 그리도 급히 떠나 여만
했는지요!

마음속에 담아온
다시 만날날을
기리는 가느다란
희망 마저도 모른체...
잘가라는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었는데...
그렇게 영원히 떠나 버리시다니요!

우리는 지난 40 여년을
같은 고장 Philadelphia 에 살면서
한때는 젊은 시절을 함께 즐겼고
또 같이 늙어 가면서
서로 변해가는 모습 지켜보며
정도 깊어 갔었지요.

요지음 멀리 떠나 살게 되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로, 문자로 안부를 전하며
서로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
안계신 이세상 한없이 허전하군요!

오랜동안 병고로 힘드신 가운데 서도
Dr. Lee 의 지극하신 정성과 사랑으로
행복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세상의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병마
다 떨치시고 평화로운 천국에서
편히 쉬시기를 빌면서...
친구여 안녕히!

홍정임 (Mrs. 박호현 '58)